

新羅馬形文土器

— 馬形文의 起源的考察 —

丁 仲 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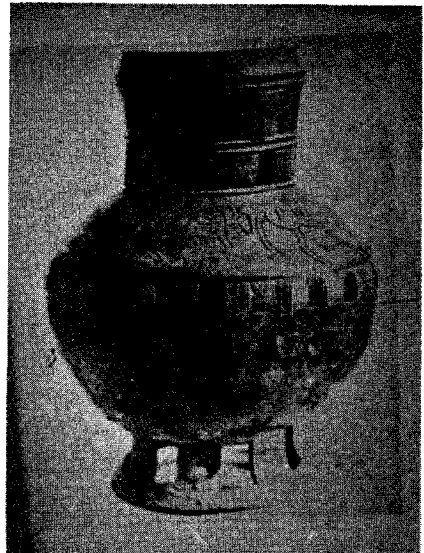
1961年 外務部 刊行 “Korean Arts” 第2卷 土器篇中 “Notes and plates”에서 plates II로 馬形文 土器를 取扱하고 그 說明中에서 土器에 馬形文을 그린 것은 단순한 裝飾으로만 그린 것이 아니고 어떤 呪術的 意義(Some magic significance)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

事實 新羅 土器中에서도 馬形文을 陰刻한 土器의 出土例는 그다지 흔한 것이 아니고 寡聞한 바로는 國立博物館의 것(plate II)과 其外 東亞大學校에 所藏되어 있는 것 以外에 또 있었다는 말은 들었으나 筆者는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國立博物館의 것은 五馬文 全部가 “얼룩”으로 되어 있는데 東亞大學校의 것은 五馬文中 二馬는 “얼룩”이고 三馬는 “얼룩”으로 하지 않았는데 形體의 大小에 있어 또한 五馬가 各異하게 陰刻되어 있다. (寫眞 參照)

그리고 馬形文 土器에 관한 說明도 이 “Korean Arts”에 紹介된 것 以外에 具體的으로 說明된 것은 筆者가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다.

筆者가 東亞大學校 博物館에 관계한 뒤로 이 馬形文 土器의 文樣에 대하여 생각 해 볼 機會를 갖게 되었다.

이 馬形文도 다른 土器의 文樣과 같이 當時 人們의 生活 周邊에 있는 親熟한 動物像을 그려 그려 보았다고 생각하면 아무 說明할 意義조차 없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여기에 呪術的인 現實의 現實의 間에 어떤 意味가 內包되어 있다면 果然 그 意義는 어떠한 것일까. “Korean Arts”에 紹介한대로 Some magic 한 significance를 가진 것일까 or은 어떤 現實의인 意味를 象徵한 것일까. 이에 대하여 筆者가 平素에 생각한 所見을 여기에 發表하여 보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土器의 考古學的인 考察이라기 보다 土器에 陰刻된 馬形文의 歷史的 起源을 생각하여 보려는 것이다. 어리석은 徒勞가 될지 알 수 없으나, 행여 土器 文樣에 대한 起源의 說明을 試圖코자 하는 사람에게 少分의 參考가 된다면 多幸일가 생각한다.



國立博物館 所藏 馬形文土器
“Korean Arts”에서

二

新羅 土器(長頸壺)에 陰刻된 五馬形文을 起源的으로 생각하여 볼 때 大體로 다음 다섯가지 根據를 들어 보겠다.

(1)Round the shoulder of the jar is a crudely insised design of five horses..... It is thought that the horse design may not have been purely decorative but had some magic significance. The open work foot is characteristic of Silla pottery during the first period(C. 380~600 A. D.)



東亞大學校 博物館 所藏
高 34cm 頸高 7.2cm 台高 4.9cm
口徑 17.2cm 台徑 18.3 cm

그리고 이 土器가 製作되었다고 생각되는 5·6世紀 頃에도 비록 金氏 王權이 確立되어가는 過程이기는 하지만 朴氏族은 오히려 王妃族으로 如前히 그 地位를 確保하고 있었으므로 氏族的 Totem으로서 馬形文의 起源을 생각 할 수 있는 바이다.

2. 殉葬代身の 土偶의 起源

殉葬法이 盛行한 때에는 家畜化한 動物은 人間과 같이 直接 殉葬되었다. 中國의 例만 보더라도 牛馬를 비롯하여 家畜化한 動物遺骨이 殷·周 時代의 墳墓에서 많이 出土되고 있고, 殉葬法이 退化한 秦·漢 以後로는 土偶로서 出土되었으며 이 遺習은 薄葬法이 實施된 以後로도 土·陶製의 偶像으로 出土되었다. 그런데 記錄에 依하면 新羅에서는 智證王 3年(A. D. 504)에 殉葬法을 禁하였다하니(3) 或 다섯 마리의 馬文은 男女 各 5人의 殉葬과도 有關한지 알 수 없다. 同時代에 製作되었다고 보는 金鈴塚 出土의 騎馬像水注는 土偶의 目的과 實用的 目的을 兼하여 製作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 馬形文 土器는 單純한 土偶의 目的에서 製作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一段은 土偶의 目的으로 製作된 것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는 것이다.

以上 Totem의 起源이나 土偶의 起源은 이것이 하나의 觀念的 形態에 屬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다 음은 보다 現實的 意味를 가진 起源論을 例擧하여 보기로 하겠다.

3. 部制의 起源

新羅의 建國說話는 三國遺事나 三國史記가 모두 六村을 傳하고, 六村이 備理王 九年에 6部로 改編되었

(2) 檀君은 熊女所生, 金閼智는 降生時 白鷄가 樹下에 울었고 朴赫居世는 白馬가 長嘶上天 하였더니 熊·鷄·馬는 모두 氏族의 Totem이라고 解釋 된다.

(3) 智證王 三年 春三月 下令禁殉葬 前國王薨 則殉以男女各五人 至是禁焉……(三國史記)

다고 말하는데 대개 村과 部를 明確히 區分하여 使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생각컨대 儒理王 九年條의 部 改編에 있어서 同時에 17等 官階를 定하고 또 嘉俳節의 起源을 說明함에 6部를 兩分하여 王女 2人으로 部 內의 女子를 거느리고 分朋造黨하여 續麻하였다고 하니 結局 6部라고함은 王氏族인 朴氏族의 伴部的 部 民임에 지나지 않으며 昔脫解는 結婚을 通해서 王氏族에 參加하였고 金氏族은 朴氏族에서 分裂된 말하자 면 朴氏族과 宗支關係의 氏族으로 金姓을 稱하게 된 것인지 또는, 結婚에 依해서 王氏族에 加入된인지 二者中 어느 쪽에 該當할 것이다. 그리하여 眞興王 巡狩碑에 나타나는 部名은 喙·沙喙이 主가 되고 本彼 는 아조 微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假使 喙部가 朴氏族의 伴部的 部民集團이고 沙喙이 朴氏族과 宗 支關係로 分裂된 金氏族의 伴部的 部民이라고 한다면 本彼部는 昔氏族의 伴部的 部民集團일지도 알 수 없 다. 그리고 奈勿王 以後 新羅의 建國期 以後로는 昔氏族은 벌써 王族으로서의 地位를 喪失하였다고 생각 되는나만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朴·金 二氏族으로 構成된 王氏族級과 그 部民集團으 로서의 3部를(喙·沙喙·本彼) 생각 할 수 있다. 더우기 三國遺事에 “今俗中興部爲母 長福部爲父 臨川部 爲子 加德部爲女 其實未詳”이란 興味있는 記錄이 傳하고 있다. 中興部는 喙部에 該當하고 長福部는 漸梁 部, 臨川部는 習比部, 加德部는 漢岐部로 여기에는 沙喙部和 本彼部가 包含되어 있지 않다. 그 것은 沙喙 部和 本彼部가 元來 母部인 喙部에 包含되는 곳으로 前述한 바와같이 朴氏族 金氏族 昔氏族(昔氏族은 王 族에서 除外되었지만)의 宗支分裂에 依한 伴部的 部民集團이었으므로 結局은 母部の 朴·金 二氏族의 宗支分裂로 成立된 中樞部가 된 것이고, 漸梁部 以下 即 父 女 子部는, 이 中樞部の 擴大過程에서 編入 된 伴部的 順次的 또는 勢力的 表示라고 理解된다. 그런 意味에서 新羅 土器에 陰刻된 五馬形文은 部制와 關連하여 생각할 境遇에 두가지로 생각 할 수 있으니 하나는 母部時代의 傳統을 表示하여 朴氏族 金氏族 과 喙部 沙喙部 本彼部 3部를 象徵하는 五馬로 解釋 할 수도 있고 둘째는 母部를 喙 沙喙의 朴 金 兩氏 族으로 보고 餘他の 父 女 子 3部를 合하여 五部로 各部를 象徵하는 五馬를 생각 할 수 있다. 特히 前 述한 東亞大學校 所藏 土器에는 두 마리의 얼룩 말과 세 마리의 흰 말이 이러한 意味를 생각하게 한다.

4. 高句麗의 起源

新羅의 建國過程에 있어서 高句麗의 影響을 直接 間接으로 받은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末松 博士도 指摘한 바와같이 (4) 廣開土王 碑文에 記錄된 高句麗兵의 新羅 援助,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傳하고 있는 昔于老의 記事,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傳하고 있는 高句麗兵의 新羅駐屯 等은 約 6·70年의 長期間 에 高句麗의 政治的 軍事的 影響力이 新羅에 미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이에 高句麗의 五部 體制와 軍制 等이 影響하여서 五部體制를 象徵한 五馬文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5. 骨品の 起源

三國史記 雜誌 屋舍條에는 骨品에 依한 屋舍制限의 禁制가 記錄되어 있다.

六頭品 室長廣 不過二十一尺 不覆唐瓦 不施飛簷重杖棋牙懸魚 不飾以金銀 鑿石白鐵五彩 不置 巾階及二重階 階石不磨 墻垣不過八尺 又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緣禁罽繡綾 屏風禁繡 床不得飾 玳瑁紫檀沈香黃楊 又禁錦薦 不置重門及四方門 廐容五馬

여기에 보이는 “廐容五馬”는 六頭品은 馬廐에 五匹以上の 馬를 收容하여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眞骨에 게는 이 禁制가 없는 것으로 보아 別制限이 없었던 것 같고 五頭品에게는 “廐容三馬”이고 四頭品에게는 “廐容二馬”로 되어 있다. 五馬를 收容한다는 것은 五馬를 所有할 수 있다는 것이니 土器의 五馬文은 곧 이 土器를 副葬한 墳墓의 塚主가 身分의으로 六頭品에 該當함을 繪畫의으로 表示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것은 萬若에 新羅에서도 저 高句麗와 같이 石室塚이 築造되고 壁畫가 그려졌더라면 훌륭한 壁畫로 表現

(4) 末松保和著 新羅史의 諸問題中 新羅建國考 參照

되었을것이 積石塚이었기 때문에 壁畫로 表現할 길이 없고 다만 明器인 土器에다 그나마 文樣으로 陰刻하여서 그 塚主의 社會的 現實의 身分을 간신히 表示하고 있는 것이 아닐가. 다만 여기에서 問題되는 것은 이 土器가 製作되었다고 하는 5~6世紀에 이미 新羅에서 이러한 骨品上的 階層이 分化되고 社會적으로 이와 같은 制約이 있게 되었던가 하는 點이다.

三

前述한 바와 같이 馬形文이 別意味없이 한갓 土器의 文樣으로 그려진 것이라면 問題할 바가 아니겠으나 적어도 어떤 意味를 內包한 것이라면 五馬形文이 지니는 起源的 意義는 무엇일까. 以上 다섯가지 起源論을 假定하여 보았는데, 筆者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magic 한 significance 를 지녔다가 보다 現實의 어떤 意義를 지닌 것으로 생각되며 現實의 意義中에는 部制와 關連된 것에서 出發하여 나중에는 骨品에 까지 相關되어진 것으로 理解하고 싶다. 만약 骨品制가, 또는 적어도 骨品制를 基礎세워준 社會的 要件中에 이미 이 土器의 製作時代에 있어서 “厩容五馬”의 身分의 階層의 原初의 形態를 지니고 있지 않았던가. 特히 二匹의 얼룩 말과 三匹의 흰 말을 그것도 자기 形體를 달리 表現한데서 느껴지는 생각이다. 紙面關係로 지나친 說明의 飛躍이 있게 되었음을 謝過할 뿐이다.

여기에 參考로 한가지 더 添附할 것은 俗離山 法住寺의 磨厓佛像下에 三匹의 馬像을 彫刻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紐帶로서 連結되어 있다고 記憶된다. 寺僧의 說明에 依하면 極樂行의 送死馬를 表示한 것이라 한다. 馬韓의 遺風인지 勿論 彫刻은 新羅時代의 것으로 되어 있다.

補 遺

이 原稿 發送後 國立博物館 美術課長 崔淳雨先生으로부터 보내주신 美術資料 第六號에 掲載된 金元龍先生의 “三國時動物形土器試考”를 읽고, 새삼 筆者가 이 方面의 論著에 無識하고 等閑함을 愧우치면서 未洽한 點을 補遺하는 바이다. 馬形文土器에 관한 金教授의 說明을 그대로 引用하면 “우리는 新羅土器에 말을 그린 例를 보고 있다. 이 말을 그린 新羅土器는 十中八九 祭器임에 틀림 없는 것 같다. 말 그림을 附加함으로써 이 單純한 日常土器에 犧牲을 담은 祭器로서의 格을 賦與하고 있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馬車와 함께 主人의 무덤으로 埋葬될 말 대진에 집어넣는 殉葬用 明器라고도 解釋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보면 傳昌寧出土의 馬形土器도 副葬品으로서 또는 祭器로서도 解釋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여 이 馬形文土器가 祭器임을 말하고 犧牲 代身에 日常土器에 馬形文을 附加한 殉葬用 明器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動物形祭器 例를 西歐의 土器에서도 指摘하고 있다. 勿論 明器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 되는 것은 樂浪 彩篋塚 出土의 六頭의 木馬像이다. 이것은 現實적으로 當時 西城地方에서 進貢하는 名馬를 象形한 것이라고 하겠다. 멀리 樂浪地方에서 이러한 名馬에 대한 憧憬은 여간한 것이 아니었으리라 推測되며 이와 같은 心情은 新羅에서도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樂浪에서는 六頭의 木馬를 副葬하였고, 唐太宗은 八駿을 가졌는데 新羅는 어찌하여 五馬文을 그렸던가에 있다. 筆者의 생각은 이 五馬의 數가 어떤 現實의 意義를 갖는 것이라고 보아, 殉葬에 있어서 男女五人을 定함과 같이 現實의 部나 骨品과 關聯된 것이 아닐가 하는 바이다.

끝으로 崔淳雨先生의 好意에 感謝하여 마지않는다.